

동화

오미르바다 입양 보내기

장미연

모 든 게 그녀석 때문이었다.
모든 게 그녀석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모든 게.....
정말이지 난 조금도 그녀석을 괴롭힐 생각 따윈 없었다. 뭐 그다지 달가운 존재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대놓고 그녀석을 미워하거나 해코지 할 생각 따윈 조금도 없었다. 그리고 설마...설마 엄마가, 어 태껏 십 년 동안 나만 사랑해온 엄마가 그런 짹그만 그녀석 하나 때문에 사랑이 식을 거라고는 조금도, 정말 병아리 눈물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석이 태어나던 날부터 모든 게 바뀌어 버렸다. 특히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엄마의 사랑은 영원히 시베리아 벌판 너머로 날아가 버렸다. 날아가 버리기만 하면 다행이지? 아주 풍경 열어붙어 새들이 와도 다시 돌아올 생각조차 안 했다. 아, 이건 정말 배신이다. 배신!

“오길은하늘!”

“....”
엄마가 내 이름을 이렇게 꽉꽉 채워서 부르는 건 정말 정말 화가 많이 났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반항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이지 울음이 목구멍까지 꽂 차서 흥수가 날 것만 같아 대답을 못 하는 것이다. 대답을 하면 그 순간 목구멍까지 차오른 물들이 막 흘러넘칠 것 같다.

“오 길은하늘! 너 정말 엄마한테 끌까지 맞서 보겠다는 거야?”

“그...그게 아니고요. 깨...꺼져...꺼져.”
존심 상하게 나도 모르게 그만 깨깨대기 시작했다.

“애 좀 봐. 뭘 잘 했다고 깨깨대고 울어, 울기는?”

“그...그게 아니고요. 어...어영.”

내 깨깨대며 통했나 보다. 엄마의 치켜 올라갔던 눈꼬리가 조금씩 그 맹맹한 기운이 빠지더니 15도쯤 내려갔다.

“그래, 너도 뭔가 쓰인 게 많을 거란 건 알아. 오늘은 엄마가 다 들어줄게 속 시원하게 말해봐라.”

속 시원하게라..... 엄마의 달콤한 미끼에 아까 맞은 손바닥이 김치국물에라도 담근 것 마냥 얼얼해져 왔다.

“바다는 아기잖아.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기가 조금 귀찮게 한다고 그렇게 거칠게 다루면 어떨까? 그래서 회초리 몇 대 때린 게 그렇게 억울했어?”

와, 회초리 몇 대란다. 조금 귀찮게 했단다. 그래요, 엄마. 난 진짜 억울해요. 이 순간에도 알미운 그녀석은 엄마한테 찰싹 불어서 해해거리고 있다. 나아빠는 노음! 모든 게 저 놈 때문이니. 순간 목구멍까지 칠을 떴던 물들이 순식간에 뜨거운 화산불로 바뀌어 화르르 화르르 타올랐다.

“나이 먹어서 다시 애 낳는다는 건 엄마에게도 힘든 결정이었어. 하지만 갑자기 동생 갖고 싶다고 먼저 떼 부린 건 너였잖아? 이제 와서 이런데 어떡하니?”

그래, 알고 있다. 이기적인 아이라 해도 어쩔 수 없다. ‘동생이란 건 귀찮고 성가시고 짹짜리며 울기만 하는 것들이다.’ 그뿐인가. ‘툭 하면 고자질을 해대서 작하고 순해빠진 형이나 누나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는 아주 쓸모없는 존재들이다.’라고 주변의 동생 있는 친구들이 끊임없이 가르쳐 줬다. 그래서 난 누구 보다도 동생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때문에 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외아들인 내 자리를 끌까지 지켜내리라 굳은 결심을 했다.

그...그런데.....
정말 그날 일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판단력을 허리에 만들었던 결정적인 그 일에 대해서도 더 냉정해질 수 있겠는데....., 아, 아쉽다. 하지만 이미 엎질려진 물인 걸 어떡한단 말인가.

학년 때였다. 같은 반에 덩치만 막고 설타래는 대범이라는 무식한 아이가 있었다. 나도 나를 쌔움짱이었던 티라 그녀석과 자주 붙곤 했다. 그 날도 아침없이 그녀석과 한판 붙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주먹을 날렸다는 조짐은 억울한 이유로 나만 더 오래 벌을 받았다.

“에이 씨, 맨날 나만 더 혼나!”
투덜거리며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저 만큼 등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는 대범이가 보였다. 남은 분이 덜 풀려 한판 더 불으려는데,

“오빠아!”
어디선가 물방울 같은 목소리가 또그르르 굴러 나왔다. 병설 유치원에서 갈래 머리를 끊은 고마애가 분홍색 주름치마를 나풀거리며 뛰어 나왔다. 그리고 대범이 그녀석에게, 무식한 대범이 그녀석에게 찰싹 불더니 웃어준다. 봄바람같이. 인상과 대범이가 봄바람에 간지러운 듯 흐믓한 표정이다. 봄바람이 나랑 싸우다 생긴 파란 명을 걱정스레 들여다 본다. 새싹을 어루만지는 봄햇살같이. 그 봄바람, 그 봄햇살 때문이었을까? 난 그날 이후로 쌔움짱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그날 처음을 “와! 룰! 다!”라는 말을 잘근잘근 삼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였다. 내게도 동생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부러움과 외로움에서 시작한 작은 생각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더니 나중엔 찰을 수 없을 정도의 큰 바람으로까지 자랐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을 조르게까지 되었다.

어차피 힘든 결정 하시는 거 이왕이면 순하고 예쁜 여동생으로 만들어주실 것인지 귀찮개끔 허구한 날 짹짜 우는 저런 애송이 남동생이나 만들어 주시다니. 아, 정말이지 저런 그녀석은 ‘됐어요. 필요 없어요’다. 그녀석은 둘까지 지났으면서 아직까지도 새벽이면 깨서 이 형님의 수면을 방해하는 철딱서니 없는 짓만 한다. 그런데도 엄마는 내게만 철딱서니 없다고 한다. 이런 정말 억울하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그녀석을 벼르는 사악한 형이 되어가나 보다.

“그래? 정말이니? 아줌마는 아기가 없어서 하늘이네가 항상 부럽던데.....”

마를 또 만났다. 등글등글한 몸매에 얼굴까지 등글등글한 그 아줌마의 눈은 네모난 뺨에 안경 너머에서 늘 웃고 있었다. 어쨌든 바다 너서이 태어난 뒤로 내게는 하나님도 상냥하지 않은 을 엄마 보다 열 배는 상냥하게 날보고 웃어주신다. 그런데 그 날은 인사하는 나보다 바다 너서이 보고 더 반가워 하셨다.

“어머, 얘기 많이 캤네? 아유, 귀여워워. 어머, 웃기도 잘 웃네.”
“그리고요. 언제 크나 했는데 벌써 이렇게 쟁네요. 하늘아, 인사 해야지.”

엄마는 아줌마랑 수다 떠느라 내가 인사하는 것도 못 봤나보다. 너서이 생긴 후로 늘 이런 식이다. 여울한 잔소리까지 들어야 한다. 사람 좋아보이던 그 아줌마도 내 인사는 건성으로 받더니 나중에야 아는 체를 하셨다.

수다이긴 했어도 상상만 해도 신났다. 너서이 사라지다니....., 그럼 그 날로 난 달콤한 수면을, 자유로운 독서를, 방해 안 받는 블록수첩을....., 으흐흐흐. 상상만 해도 신난다. 예휴. 상상만 하면 뭐 하나. 어차피 날 달래기 위한 엄마의 연기였을 뿐인 걸.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신경 안 썼다. 맨날 여자애들 반지 조각 같은 것들만 뽑히는 해바라기 구조점으로 대답했다.

“아니요. 하나님 안 좋아요.”

그러자 늘 부드럽게 웃기만 하던 아줌마의 눈이 단초알처럼 동그래졌다.

“아니, 왜?”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맨날 짹짜 울고

모든 게 그녀석 때문이었다

모든 게 그녀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게...

여울하게 나만 애玷맞게 하잖아요.”
“호호호, 하늘이가 동생 때문에 힘든가 보구나.”
힘든 정도 뿐이겠어요. 아주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구만. 이런 내 맘이 표정으로 나타났을까? 엄마가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그럼 우리 바다 입양 보낼까?”
입양이라고? 정말 우리 엄마 유치하기도 하시지, 내가 뭐 아직도 산타클로스나 기다리는 유치원생인 줄 아나봐. 엄마는 내가 바로 땀에 속상하다고 막 투덜대기 시작할 때부터 걸핏하면 입양 얘기를 꺼냈다. 내가 뭐 그 말에 속을 줄 알고?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나도 엄마의 잔머리에 지지 않고 눈 똑바로 끄고 대꾸했다. 그런데 이번엔 403호 아줌마가 기세 좋게 말대꾸하는 내 말을 받아쳤다.

“그래? 정말이니? 아줌마는 아기가 없어서 하늘이네가 항상 부럽던데.....”

녀석을 재우더니 밤늦게 날 불렀다. 그러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정말 그렇게도 간질히 바다가 없으면 좋겠냐고 물었다. 너무 심각하게 물으시길래 나도 그냥 목구멍에서 간신히 기어나오는 대답으로 “네”라고 했다. 그랬을 뿐인데 어느 날 오미르바다를, 귀찮은 그녀석을 입양 보낸단다. 403호로, 이렇게 이런 일이?

든 게 그녀석 때문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번엔 모든 게 내 대답 한 마디에 정신 차리고 생각해볼 틈도 없이 순식간에 정리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늦잠을 자서 허겁지겁 일어나 밥을 먹는데 뭔가 다른 날과 달랐다. 아빠는 이미 출근했고 엄마는 조용히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만, 나만 혼자 밥을 먹고 있었지. 뭐지? 이 썰렁한 분위기는? 맨날 아침부터 집안을 어지럽힌 바다 너서도 보이질 않았다. 그리고 현관 앞에 놓인 큼직하고 빨간 여행 가방은 또 뭐라 말인가? 그 가방은 엄마가 바다를 낳으려 갈 때 함께 병원에



그림=최재영

▲조선대 회화과와 영국 슬라이드 예술대학, 월블던 예술대학원 졸업
▲광주·서울·런던 등지서 11차례 개인전. 유럽·일본·중국·싱가포르·대만 등지 국제 아트페어와 기획 초대전 참여

따라 갔다가 다시 퇴원하던 날 바다와 함께 온 건데? 텔도 안 난 강아지새끼 같이 쭉끄맣던 그녀석이 아빠 품에 안겨 푸를 했지. 아, 그 텔도 너서를 품에 안기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지? 에이~설마?

학교에서도 내내 그 빨간 여행 가방이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귀찮은 너서, 가려면 조용히 너서질 것이지 왜 또 끌기만 해도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403호? 403호? 슬쩍 한번 들여다 볼까? 봐서? 그 다음엔? 뭐 그냥 한번 들여다 보고만 오면 되지. 그래 아줌마를 잘 따르거나 하는지 슬쩍 한번 보고만 오지. 뭐, 그래 보고만 오는 거야. 뭐 너서이 걱정되거나 다시 데려오고 싶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다. 그래도 입양을 보냈으니 최소한 잘 있는지는 봐 주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였다.

교수가 끝나자 마자 집으로 달려가 가방을 던졌다. 바로 나오려는데 빨간 여행 가방이 아직도 현관 앞에 턱 하니 벙어 채 날 째려웠다.

“깊은하늘, 저 가방 좀 403호 갖다 줄래? 엄마는 차마 못 가겠다.”

안방에서 엄마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울고 난 목소리 같았다. 평소 같았으면 ‘에이, 귀찮게 내가 왜요?’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빨간 가방은 그대로 문에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왔다.

403호 현관 앞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안 났다. 짜식, 짜식 적응해버렸나? 이렇게 빨리? 아냐, 그럴 너서이 아닌데, 그냥 한 번만 직접 눈으로 보고 갈까? 403호 아줌마가 참 좋은 분이란 건 알지만 혹시 알아? 만약에, 정말이지 만약에 입양 한 적하고 우리 미르바다를 이상한 데다 팔아버렸으면 어떡해? 그래, 그것만 확인하고 가자.

초인종을 누르는 걸지 손가락이 이상하게 도울고 있었다.

“어머, 하늘아! 무슨 일이니? 동생이 걱정

www.geumsoojang.com

2012년 의미있는 자리를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신년모임 예약 접수중

●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 3인이상)

A 코스 38,000원 B 코스 33,000원 C 코스 25,000원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기본 3인이상)

오찬정식 15,000원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족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150여 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 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유·스퀘어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포츠마사지) 인터넷 · 암마기 · 이용원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